

## 부산시장 지원 연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할말은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을 모셔 놓고 보니까 감개가 무량해서 잠시 말이 막히기도 합니다.

마음을 좀 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한이헌 후보 되겠나?

( [됩니다]하는 이 있음 )

될까?

( [됩니다]하는 이 있음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요 됩니다. 됩니다.

( 박수 )

제가 민주당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차마 면전에서 저한테 면박은 못 주고 그러나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됐잖습니까?

( 박수 )

제가 95년도에 부산시장 여론 조사 하니까 19% 나옵니다. 그랬는데 문정수 씨가 시장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섰더니 한꺼번에 34%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떨어졌지만 까딱하면 될 뻔했잖습니까, 그때.

그때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꺾발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였고 그분이 문정수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부산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고 바로 꿈이었습니다.

거기 제가 맞선 것 아닙니까?

( 박수 )

그런데도 까딱하면 제가 이길 뻔했거든요. 막판에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그때는 총재가 아니지만 “지역정권론“을 얘기하면서 TV에 매일 나오지만 앓았더라도 그분이 대통령 다시 하겠다고 나서지만 앓았더라도 제가 될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한이헌 후보 시장되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나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지만 그분들이 그때와는 달리 그분들이 한이헌 후보 부산시장 후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시민의 영웅도 아니고 부산시민의 꿈과 희망도 아니잖습니까.

( 박수 )

거꾸로 제가 한이헌 후보를 밀고 있잖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 박수 )

92년도 14대 총선에 제가 나왔는데 저 떨어뜨리고 허삼수 씨 당선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허삼수 씨는 감옥 가버렸잖습니까. 저를 시켜 주었다라면 국회의원 제가 끝까지 잘했지요.

( 박수 )

부산시장 그때 저를 시켜 주셨더라면 부산시가 지금보다 한참 좋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제가 그 길로 커서 어찌되었을지 모르는 일이고, 그래도 떨어지고 올라가서 또 제가 종로에서 정치 일번지라고 하는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었잖습니까. 일번 국회의원 되었잖습니까.

( 박수 )

부산시민들 그때는 약간 미안했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약간 미안했지요?

( [예]하는 이 있음 )

그런데 그 좋은 종로, 종로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 학자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고, 재벌도 있고, 그 좋은 종로 딱 버리고 제가 이 부산으로 다시 내려 왔잖습니까. 그때 그것만 당선시켜 주셨더라면 제가 국민경선 하면서 이 고생도 안 하고 대통령 후보 쉽게 되었을텐데 그때 또 떨어뜨리는 바람에 떨어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대통령 후보 된다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민주당 부산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호남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호남당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잖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 박수 )

굉장한 겁니다.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님들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부산에서 왕이지 부산에서 딱 나와 가지고 기차 타고 대구만 가도 누가 알아줍니까?

( 박수 )

대전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서울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저는 서울까지 갔다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되고 호남선 기차 타고 내려가 가지고 광주에 딱 갔는데 광주에서 저더러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한번 하라고 밀어준 것 아닙니까.

( 박수 )

그러나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 오면 친구들한테도 구박받았습니다. “너 왜 호남당 가 있냐”고... 당에 올라가면 제가 금배지 못 달았으니까 금배지가 없으니까 원외 아닙니까. 우리 부산에 우리 민주당 많은 위원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원외입니다.

원외는요 정당에 가면 사람대접 안 해 줘요. 안 해 줍니다.

찬밥 먹고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93년 최고위원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전에 도전을 거듭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박수 )

14대 총선 때 그때라도 제가 민자당가면 국회의원 배지 그냥 답니다.

15대 총선 때 허삼수 씨가 감옥 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 동구가 비어 있어서 또 오라고 합니다.

또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역사를 배웠잖습니까. 초등학교 역사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원칙 없이 당을 갈라 가지고 당파싸움을 한 나라치고 잘 된 나라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분열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대통령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전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느 지역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배척당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임기말이 되면 흔들리고 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서 IMF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벌써 97년 연초에 한보 청문회를 통해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힘없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이후 IMF가 터진데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이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빠집니다.

절반의 대통령 가지고는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뛰어야 합니다.

뛰자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산다.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면 살고 개혁 못하면 한국은 주저앉고 맙니다.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하자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에서 의견이 맞아야 교육제도를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제도가 잘못 되어서 그것을 고치자면 또한 마찬가지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합의가 됩니까?

논리적인 토론이 없는 국회, 감정적인 싸움만 있는 국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 이 국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며 개혁하지 않고 21세기로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1차적으로 연말에 뽑힐 국가적 지도자가 영남에서도 지지를 받고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 박수 )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이치로써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박수 )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심판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끝내 지역적 분열구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그야말로 11대를 이 연단에서 살아온 골수영남 사람이 광주에서 호남의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입니다.

제 노력이 성공 했겠습니까?

( 박수 )

한나라당이 아무리 이 영남지역에서 저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지역감정을 부추겨도, 아무리 지역감정을 부추겨도 저는 받을만한 표는 받습니다.

( 박수 )

연말 가면 이 부산에서 이회창 총재를 이깁니다.

( 박수 )

저더러 “김대중 대통령 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노무현은 김대중의 양자다 양자다“ 양자면 어떻습니까. 재산만 상속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수 )

저도 피가 있어서 재산은 상속하고 부채는 상속 안 하고 살짝 빠질게요.

( [노무현] 연호하는 이 있음 )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한나라당 양반들 “노무현이가 김대중 대통령의 양자면 여러분들은 이회창 후보의 양자입니까?“

부산의 국회의원 17명은 이회창 총재 양자냐 이거예요. 노무현이는 김대중 대통령 양자 가서 호남의 지지라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이회창 후보한테 양자 가서 뭘 받아왔어요. 부산을 위해서 뭘 받아 온답니까.

참 제가 “우 쪽팔려“ 한번하고 싶은 데 신문에 또 무슨 쪽팔려했다고 신문에 날까봐 겁이 나서 저는 쪽팔려 안 합니다.

이회창 후보가 아주 비겁해요. 양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서서 “노무현 당신 김대중 대통령 양자지?” 이렇게 말하면 될걸 왜 아래 사람 시켜 가지고, 물론 아래 사람이 뜯마니는 아니겠지요? 아래 사람 시켜 가지고 “노무현이는 누구 누구 양자다” 비겁하게 그렇지 말고 본인이 나와서 하라 이 말입니다.

( 박수 )

자꾸 이렇게 아래 사람들 시켜 가지고 저를 봉변 주면 저도 봉변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저보다 11살 위입니다.

똑 같은 후보지만 제가 싫은 소리 한 마디 하면 그분 봉변당하는 겁니다.

11살 위잖습니까?

경고합니다.

“아래 사람들 내세워 가지고 비겁하게 지역감정 부추기고 사람을 모욕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패정권 심판” 이것이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구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부패정권 심판 아무나 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 박수 )

깨끗한 정부 세우겠다고 합니다.

깨끗한 정부 아무나 세웁니까?

손이 깨끗해야 깨끗한 정부를 세웁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넥타이를 매야 하얀 와이셔츠가 그냥 하얗지, 시꺼먼 손으로 와이셔츠를 만지면 새까만 와이셔츠가 됩니다.

( 박수 )

제가 오늘 경남도지사 후보 김두관 씨에게 그 사진을 주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1999년 4월 7일자 조선일보, 또 하필이면 왜 조선일보입

니까, 이게 또. 조선일보 화면을 꺼내보십시오. 7일 8일 9일쯤에... 아, 여기 또 있네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 예. )

97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서서 국세청 간부를 앞세워서 여기 저기 기업에서 돈을 166억 4,000만원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썼대요.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몰랐다“해서 처벌 안 받고 아래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는데, 법적으로야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회창 후보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학교 후배 서상목 의원이 이 돈을 40 몇 억 거두어다가 일부는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갖다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니까?

이것을 “뽕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거둔 죄, 불법자금 거둔 죄만 해도 몇 번 구속해야 되는데 하물며 배달사고까지 냈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즉각 구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속 안 시키려고 이회창 후보가 방탄국회를 다섯 번씩 열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론에 밀려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이회창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뽕땅 들고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속되어야 될 이 국회의원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놓고 이겼다고 끌어안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 박수 )

지금 제 앞에 사진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사진을 찍

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카메라를 항상 의식하는데 그 카메라의 눈이 바로 국민의 눈인데 그 국민의 눈앞에서 이렇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는 이것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의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 )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 손으로 무슨 깨끗한 정부를 만든 다는 말입니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웃긴다“

죽이 맞네요. 역시 노사모입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한나라당의 전략이 김·창 대결구도로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김대중·이회창 대결구도로 가면 요새 각종 게이트 때문에 이회창의 각종 “풍“을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총풍, 안풍, 세풍을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김·창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게이트를 띄우자 이것 아닙니까. 그죠?

12월에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안 나옵니다.

저 노무현이 나옵니다.

( 박수 )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만일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한다면 이 대결구도는 김·창 대결구도가 아니라 노·창 대결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 박수 )

( [노무현] 연호하는 이 있음 )

지금까지 우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3김정치 청산하자“ 합시다.

3김정치 청산합시다. 하는데 왜 청산해야 됩니까?

보스정치, 계보정치, 안방정치 무슨 가신정치, 이것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청산하자 이 말 아닙니까?

지역주의 정치 청산하자. 지역감정 부추겨서 국민을 분열시켜 가지고 정권 잡겠다고 하는 이 못된 정치 청산하자 이것이 바로 3김정치 청산에 대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회창 총재 보스정치 안 합니까?

( [합니다]하는 이 있음 )

하지요?

이회창 총재 지역정치 안 합니까?

( [합니다]하는 이 있음 )

영남 돌아다니면서 수십 번 집회를 열어 가지고 지역감정 부추겼습니다.

부산 와 가지고 국민을 가장 무시한 어떤 정치인을 손을 번쩍 들면서 부산의 아들이라고, 부산에는 그런 아들 둔 일이 없습니다. 부산은 민주화의 도시입니다.

( 박수 )

이렇게 지역감정 부추겨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3김하고 똑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3김정치 물러갈 때 청산 안 해도 물러갑니다. 저절로 물러갑니다. 3김정치 물러갈 때 우리는 “이회창 정치 청산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 박수 )

그래서 3김정치는 끝났으니까 청산하지 말고 저절로 물러가게 놔두고 이회창식 정치 청산합시다 하고 노무현이 한번 시켜주십시오.

( 박수 )

이제 제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 정책은 다음 TV토론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민들이 쳐다만 보아도 기분 좋도록 저 그야말로 낮은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 그리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박수 )

갈등생깁니다.

정책을 말하고 싶거든요. 갈등 생기는데 다 접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라가 있다면 재주 좋고, 솜씨 있고, 실력 있어서 시장경제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빛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시장에서 꼭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국가가 있다면 국가는 그들에게 밥 먹는 건 책임져야 되고, 몸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어야 되고, 아이들 공부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집 값, 물가 이것 확실하게 안정시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닌 여성들이 그야말로 형편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아이들 좀 마음놓고 맡겨놓고, 마음놓고 맡겨놓고 일하러 다닐 수 있도록 보육정책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박수 )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육정책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 연설은 저보다 못하지만 여성 정책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복지정책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따뜻한 마음씨로 풀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저보다 10배나 잘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아주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한국 최고의 여성 정치인으로 우리 이미경 의원을 뽑습니다.

( 박수 )

자랑하려고, 제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모

시고 왔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이헌 후보 찬조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많이 드려야 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꼭 있습니다.

제가 강서 지구당을 맡아 갔더니 바로 앞의, 국회의원이 한이헌 의원님이  
셨는데 정말...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수석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  
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 박수 )

연설을 하는데 말뜻을 보고 박수를 치셔야지 아무 뜻도 없이 “그렇지 않습  
니까.” 박수 짹짹 치고, 그러니까 연설하는 사람마다 “하겠습니다.” 고함만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정말... 잊어먹었습니다.

( 박수 )

정말 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과거에 정권들은 수 천억씩 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87년 6월 항쟁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  
리고 문민정부가 들어 설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 천억은커녕 수 백억은커녕 몇 십억 해 먹고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밝혀집니까.

금융실명제 때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를 입안하고 강행한  
사람이 바로 한이헌 수석입니다.

( 박수 )

지난 20년 한국 역사에서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한  
개혁 중에서 최고의 개혁이 금융실명제입니다.

( 박수 )

바로 이와 같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부산시를 한번 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 박수 )

한이헌 후보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90년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돌아가면서 해 먹는 이 모습이 지겹지 않습니까?

뭘 제대로 해 놓았습니까.

부산시정에 대해서 장부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장부 보아야 합니다.

장부를 보아야 하는데 엉터리로 대강 대강 보지 말고 진짜로 보아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보아야 되는데 한통속이라 성의 있게 보겠습니까? 시의원들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되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부산시장에게 감히 장부 보자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따라서 장부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시의원 숫자가 우리가 많기는 불가능하니까 시장 바꾸면 장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여기 저기 나고 있잖습니까. 나지요?

화끈하게 한번 열어봅시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수준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됩니다.

한번씩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진처럼 오만불손한 시장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구박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구박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경쟁시켜야하고 경쟁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바꾸어 버립시다.

( 박수 )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이헌 후보 물건 좋지 않습니까?

( 박수 )

실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 )

한 마디 더 남았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보답 드리는 것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날 저의 승리로서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수 )